

# 삶 속에서 보석을 발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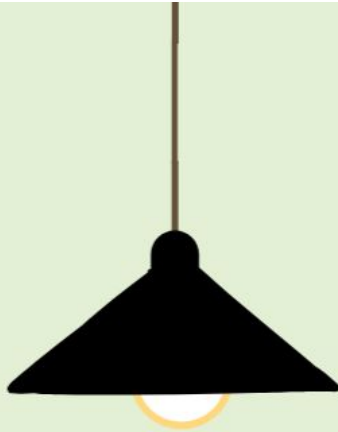
한미화 지음



# 삶 속에서 보석을 발견하며

한미화 지음





아내, 엄마이자 기도하는 사람

## 한미화 작가

삶에서 소중한 가치를 찾아내  
그것을 글로 정리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즐깁니다.  
이를 '엄마의 성소' 곧,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한 기도 및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만들어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엄마의성소 #자신과이웃 #기도 #성찰



한미화 <미완의 은상>

## 순직한 향해

작은 돛단배가 하나가 거친 풍랑을 헤치며 지금 여기까지 향해 왔습니다.

햇빛은 찬연하게 쏟아지고, 바람은 돛을 향해 달려들어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급류에 휘말렸던 순간도 있었지요. 그때 정말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오직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과 보이지 않는 그 큰 손의 도움에 힘입어 난파되거나 침몰되는 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떠 올리자니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그리고 확연하게 감사가 무럭무럭 피어오릅니다.

오늘도 내일도 가야 할 그곳, 난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곳까지 안내하는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순풍이 불어주기를 기도하며 도달해야 할 그 항구를 향해 소망을 갖고 나아갑니다.

## 미완의 은상

단축 마라톤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달리기와 지구력에는 이유 없이 자신이 있었지요.

시내에서 출발해 대학교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5 km 경주였습니다.

처음에는 호흡을 조절하며 달리다가, 1/3 정도 남은 지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로 올라섰지만, 맨 앞 선수는 지치지 않고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우승은 틀렸구나’ 하는 체념과 함께 도로 옆에 앉아 버렸을 때, 응원하던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었구나.’ 하는 각성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벌써 나를 지나친 몇 명을 다시 추월하긴 했지만, 맨 앞 그 선수는 결승선에 다다를 때까지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은상을 받으며, 우승하지 못한 아쉬움이 내내 내 마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쉬움은 ‘자만하지 않고 준비하여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한

다'는 생각에 힘을 주었고, 이 돛단배를 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 잔잔한 빛을 발하는 지금의 나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고, 결혼하여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아기를 누가 키워야 할까.’ 여러 날을 고심하다가 결국 엄마인 내가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를 돌보며, 엄마가 직장에 간 다른 아이들도 함께 보살피고 가르치며, 엄마이자 현장 교육자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 사회로 나가 자신의 길을 걷고, 많은 제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와 함께하는 어린 제자들이 남아 있지만, 이젠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다 마친 학생처럼,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 선교사처럼,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지금을 누립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느낀 보람과 기쁨, 이루고자 했던 소망과 그것을 실현해 온 발걸음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그것들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 영상을 통해 전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 앞에 펼쳐진 풍경들에 새로움을



느끼며, 움직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 마음이 벅칩니다.  
지난날 아팠던 순간들도 지금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음에 스스로가 흐뭇하고, 그 세월 속에서 한 부분 한 부분 극복해가며 하나씩 승리해 옴을 조용히 자축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를 마치며, 삶 속에서 발견한 깨우침의 작은 보석들을 소중히 매만집니다.

맘속에서 평화의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생각 속에서 기쁨이 샘물이 뿜뿜 솟아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잔잔한 빛이 흘러나옴을 느낍니다.  
살아 있음의 모든 순간에서 깨우침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기에 호흡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오늘도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기대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 잔잔한 빛을 발하는 지금의 나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고, 결혼하여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아기를 누가 키워야 할까.’ 여러 날을 고심하다가 결국 엄마인 내가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를 돌보며, 엄마가 직장에 간 다른 아이들도 함께 보살피고 가르치며, 엄마이자 현장 교육자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 사회로 나가 자신의 길을 걷고 있고, 많은 제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와 함께하는 어린 제자들이 남아 있지만, 이젠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다 마친 학생처럼, 맡겨진 임무를 완수한 선교사처럼,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지금을 누립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느낀 보람과 기쁨, 이루고자 했던 소망과 그것을 실현해 온 발걸음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그것들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 영상을 통해 전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 앞에 펼쳐진 풍경들에 새로움을

느끼며, 움직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 마음이 벅칩니다.  
지난날 아팠던 순간들도 지금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음에 스스로에게 흐뭇하고, 그 세월 속에서 한 부분 한 부분 극복해가며 하나씩 승리해 옴을 조용히 자축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를 마치며, 삶 속에서 발견한 깨우침의 작은 보석들을 소중히 매만집니다.

맘속에서 평화의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생각 속에서 기쁨이 샘물이 뿜뿜 솟아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잔잔한 빛이 흘러나옴을 느낍니다.  
살아 있는 모든 순간에서 깨우침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기에 살아 움직일 수 있음을 기뻐하며 오늘도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기대에 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 두 여인의 이야기 - 침잠과 도약

동네 도서관 한 귀퉁이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내 시선은 그녀의 팔에 머물렀습니다.  
부어오른 왼팔, 감겨 있는 압박 붕대, 이 팔 부종을 이미 경험했기에, 그 불편함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암 치료를 받으셨나요?”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유방암 치료 과정은 끝났는데, 병원에 다닐 일이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같은 과정을 겪어봐서요.”

그녀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마음속 짐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치료가 끝나도 병치레는 여전히 계속되더라고요. 팔 부종에 관절염, 골다공증,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까지... 병원 가는 일이 이제 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많이 힘드시겠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까지 치매에 걸리셔서... 매일 아침 어머니 댁에 가서 밥을 차려 드리고 집안일을 돕다 보니, 제 몸은 돌볼 겨를이 나질 않아요.”

“혹시 도와줄 가족은 있나요?”

“없어요. 두 딸은 결혼해서 멀리 떠났고, 남편과는... 지금 별거 중이에요.”

그녀의 말에 둘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댁 가까이 최근에 이사 오는 바람에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도 없어요.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제가 번호를 건네자, 그녀는 조심스레 스마트폰에 입력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또 다른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같은 병을 겪었지만, 얼굴에서 밝은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  
다.

“오랜만이에요.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뵙지 못해 마  
음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신 걸 보니 기쁘네  
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년 전, 유방 양쪽에서 암세포가 발견돼 전절제 수술을 받았어  
요. 수술 후 통증을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 많아졌어요.”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제가 회복되던 시기에 남편이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고, 집안  
일도 도맡아 해줬어요. 아들은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  
루 세 끼를 챙겨줬고요. 제 친구들은 제 아들이 힘들다며 돌아  
가면서 음식을 가져다주었고, 멀리 사는 친척들도 기도해주었  
어요. 그 모든 게 소중한 선물이었지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부엌에서 요리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통증 없이 물건을 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로 다가옵니다.”

“아, 고난 속에서 선물을 발견하셨군요.”

“네. 아프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  
요.”

집에 돌아왔지만, 그녀의 고백은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  
다.

어떤 이는 고난을 받아 그 풍랑 속에 잠겨버리지만, 또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오히려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같은 고난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릴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빛나는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며, 우리가 성숙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도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를 묻게 하며 말합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마음은 더욱 단단히 다듬어지며, 그 다듬어진 마음 속에서 결국 소망이 자라납니다(로마 5:3-4).”

고난 속 성찰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발견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향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무게가 벅찰 때라도 그 속에 숨어 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어두운 고난의 갭도 속에서도, 원망과 탄식 대신 지혜의 보석을 발견하며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이 깨우침의 보석들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끊이지 않는 심령의 축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하늘 향해 찬양하 는 깊은 산골 시냇물

깊은 산골, 좀처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길을 가다가, 계곡 사이로 울려 퍼지는 청아한 시냇물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곁에 있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품으며 시냇물은 쉼 없이 하늘을 향해 기쁨의 노래를 올립니다.

고요한 순간에는 고요를 담고, 주변이 소란스러울 때는 그 소리를 품으며, 시냇물은 한결같이 하늘을 향해 찬양합니다.

사르르 녹은 눈을 뚫고 새싹들이 살포시 고개를 내미는 봄.  
나뭇가지 끝에 돌아난 어린 잎들과 땅속에서 뽀족이 솟아난 작은 생명들이 어우러져 연둣빛 잔치를 펼치는 숲을 시냇물은 마음 깊이 담아냅니다.

고대하던 포근한 햇살이 가지 사이로 손을 내밀어 부드럽게 물결을 어루만질 때, 시냇물은 은빛 찰랑이는 머릿결로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누리게 된 모든 은혜에 마음이 벅차올라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숲 천장을 이루는 여름.  
물결 가까이 드리운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온 숲을 가득 채운 짙푸른 초록이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상쾌한 바람이 나뭇잎을 간지럽히고, 강렬한 햇살이 달려와 물

결과 부딪히며 수많은 은빛 파편을 흩뿌립니다.

진초록 옷을 걸친 시냇물은 찬란한 햇볕과 깊은 그늘을 함께 안고 힘차게 흘러가며, 여름의 창대함을 노래합니다.

보랏빛 맥문동도, 주홍빛으로 타오르는 나리꽃도, 숲에 울려 퍼지는 풀벌레와 새들의 울음소리도…시냇물의 선율에 각자의 화음을 더하며, 하늘을 향한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합니다.

풍성한 열매와 다채로운 빛깔이 가득한 가을.

깊게 물든 루비빛 단풍잎과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시냇물 위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풀벌레들의 고요한 울림은 숲 전체를 휘감으며 은은한 시가 되어 흐릅니다.

한 해의 풍요로운 결실을 담고 고요한 숲의 선율에 귀 기울이며, 시냇물은 마음 깊은 곳에서 끝없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노래를 올립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해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다 해도, 섬 없이 흐르며 햇빛과 비와 바람의 돌보심을 찬양하며, 끝없이 감사를 올립니다.

온 천하가 새하얀 눈으로 덮이는 겨울.

멀리 보이는 산과 들, 나뭇가지와 남은 잎 위에 소복이 쌓인 눈송이 하나하나를 시냇물은 마음에 담아냅니다.

고요히 숨 고르는 땅속 씨앗들과 단단한 나뭇가지 속에서 돌아갈 새순들의 꿈을 헤아리며, 모든 생명이 준비하는 새봄을 한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얼어붙은 빙판 위로 스며드는 햇살을 두 팔 벌려 맞이하며, 겨울 숲의 고요와 생명의 염원을 품은 채, 얼음 속 깊은 곳에서 여



전히 하늘을 향해 노래합니다.

겉으로는 흐르지 않는 것 같아도, 언뜻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하늘에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언 물결을 녹이며 시냇물은 한결같이 찬양을 올립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인적 드문 산길.

오늘도 시냇물은 끝없이 노래합니다. 바위와 바람, 나무와 새, 빛과 그늘을 품으며 여전히 하늘을 향해 찬양합니다.

바위틈을 쏙살같이 지날 때는 힘찬 찬송으로, 평평한 곳을 빙빙 돌며 흐를 때는 잔잔한 기도로.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시냇물은 그저 하늘을 향해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사와 기쁨을 물결에 담고, 생의 환희와 염원을 은빛 반짝이는 미소에 녹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여전히 하늘을 향해 찬양을 올립니다.

## 불안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용기

엄마는 아들을 두고 늘 마음을 졸입니다. 머리는 좋지만 공부에는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고, 늘 피만 부리는 것처럼 느껴 집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아들 친구들의 재능이 하나둘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어떤 친구는 수학과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일 선생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축구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많은 친구의 관심을 끄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는 미술부에서 활동하며, 교무실 복도에는 그의 작품이 걸립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은 엄마에게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태풍처럼 몰아칩니다.

‘아, 친구들은 자기 길을 찾아 빛을 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예전 같았으면 폭탄처럼 쏘아붙이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벌써 재능을 빛내고 있는데, 너는 왜 아직 그 모양이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그 방식이 소용없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뱉고 싶은 말을 꼭 눌러 담고, 아들에게 조금 더 온화하게 반응합니다.

“네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 재능을 잘 드러내고 있다니, 엄마도 기쁘구나.”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습니다.

‘내 아들만 자기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아들 친구들의 빛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아들에 대한 불안만 커지는 걸까?’

그 질문을 곱씹으며 천천히 생각 속으로 잠겨듭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친구들의 재능과 아들의 재능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라는 사실을. 재능이 드러나는 시기 또한 사람마다 다르며, 발견하고 키워가는 방법 역시 각기 다르다는 것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아직까지 \*“나는 무엇을 잘하고, 어떤 재능을 지녔으며, 그것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엄마는 이 깨달음을 조금씩 받아들이며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격려를 전합니다.

“네 친구들이 자기 빛을 발하고 있으니 참 기쁘구나. 너도 친구들에게서 좋은 점을 배우면서, 네 강점을 잘 찾아 펼쳐 나가길 바래.”

그 말을 하는 순간, 엄마는 마음속 불안과 조급함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한결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엄마는 이제 아들의 일상 속 소소한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고, 아들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한 부분에서 얻은 작은 깨우침 덕분에 불안이 잦아들고, 평안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불안의 태풍이 몰아칠 때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듯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마는 이제 아들과 그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잔잔히 피어오름을 느낍니다. 그 순간, 자신 또한 한층 단단해졌음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확신도 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발견한 이 소중한 깨우침을 아들과 나누며, 아들도 언젠가 그 보석을 스스로 발견하고 간직하여 자신의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며 어느덧 은퇴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참 행복했고, 기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단순한 추억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깨우침의 보석을 발견하게 한 소중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잘 정리하여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습니다. 글로 적고, 그림으로 담고, 영상으로 만들어 제 생각이 필요한 곳에 전하고자 합니다.

제 아이들은 물론, 제 곁을 거쳐간 제자들 역시 이제 세상 속에서 각자의 몫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 펀드 매니저, 학자, 교육가, 건축가, 기자, 군인, 선생님이요... 저마다의 자리에서 능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이루어가리라 믿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 마음은 흐뭇합니다.

저는 언젠가 다시 조용한 자연 속에 작은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오래전 산속에 지었던 아담한 대안학교처럼,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이가 있으니, 젊은 교사들이 앞에 서서 아이들과 함께하도록 하고, 저는 그 옆에서 아이들의 꿈을 듣고, 그 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교육과정을 경험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에서 진학과 진로를 지도했고, 한국에서는 정규과정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이자, 대안학교를 세워 검정고시를 거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었고, 학업에는 큰 흥미가 없지만 다른 방면에 재능을 가진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어떤 학생의 꿈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에게 적합한 길을 함께 그려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일은 결코 저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제 가족과 지인들, 함께 기도해 주는 이들, 그리고 이미 사회로 나간 제자들까지도 이 일을 기대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이들과 마음을 모아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제 모습은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걷는 선생님입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꽃피울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역량을 가장 온전히 발휘하는 길이며, 동시에 다른 이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 차례

수적인 항해

미완의 은상

자잔한 빛을 발하는 지금의 나

자잔한 빛을 발하는 지금의 나

두 여인의 이야기 - 침잠과 도약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하늘 향해 찬양하는 깊은 산

골 시냇물

불안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용기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